

T. 02-784-9820 / F. 02-6788-6115
T. 02-784-9820

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”며, “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황명선의원실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기획한 대국민 경제이슈 여론조사로서 조사기관인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했으며,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.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~ 30일이고, 95% 신뢰수준에서 ±3.7% 오차범위이며,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향후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.

[조사결과 요약]

- 금투세에 대해 87% 높은 인지도 형성, 그 중 절반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
 -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 41.7%,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 45.1%, 처음 들어봤다 13.2%
 - 연령이 높을수록 ‘실질 인지도’가 높게 나타남
 - 20대의 경우 ‘처음들어봤다’ 34%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 낮음
 - 주식 ‘高관심有경험’층은 대부분이(98%) 알고 있고, 실질인지도(67%) 또한 높게 나타남

- 금투세시행에 대한 견해는 시행·유예·폐지 엇비슷하게 갈림
 - 예정대로 시행 33.3%, 시행을 유예 23.5%, 제도자체를 폐기 28.4%, 잘 모름 14.8%
 - 2030은 ‘시행유예’, 40대·60세이상은 ‘시행vs.폐지’ 팽팽, 50대는 ‘시행’이 상대적 높음
 - 진보,보수는 ‘시행’(진보41%,보수37%)이 높고, 중도층은 ‘시행vs.폐지’ 팽팽하게 나뉨
- 56%가 주식투자 경험 있고, 경험과 별개로 국민 절반은 높은 관심도 보임
 - 투자경험 있다 56.3%, 투자경험 없다 39.7%, 잘 모름 4.0%
 -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에 대한 ‘관심이 많다’ 47.9%, ‘관심이 적다’ 48.1%
- ‘예정대로 시행’ 주장이유는 ‘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’ 응답층(n=234)
 -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 54.4% >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39.8% > 정부 세수확대 도움 4.8% (기타 1%)
- ‘유예&폐지’ 주장이유는 ‘투자심리위축, 시장침체’가 과반이상 응답층(n=365)
 - 투자심리위축으로 주식시장침체 53.7% > 소액투자자 피해 38.8% 順
- 투세시행에 대한 영향 관련 ‘시장위축 우려’ 주장에 동의가 좀 더 높게 나타남
 - ‘시장위축 가능성’ 57% > ‘시장에 영향적다’ 50%